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 회계사례수업의 학습 효과*

박 종 찬**

정 주 렬***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사례만으로 구성된 수업의 내용 및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방식에서도 대면 방식처럼 사례를 통해 회계가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 학습하는 효과를 달성했는가를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기존의 대면 방식의 회계사례수업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로 전환되었다. 온라인 수업 특성상 학생들의 대면 발표를 대신하여 모든 수강생이 수업 전에 해당 사례에 관해 수행할 과제를 신설하였다. 수업은 우선 강의자가 사례의 배경을 설명하고, 수업전 과제를 강의자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화면 공유하되 가능한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답하고 강의자는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의자는 수업전 과제 외에도 미리 준비한 질문을 제기하여 수강생의 자발적 대답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자가 설명하여 사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수업전 과제가 끝나면 사례에 대한 수강생의 질문을 받는다. 수강생은 수업 전에 미리 사례를 읽고 하나의 질문을 작성하는 질문과제를 수행한다. 질문에 대해 다른 수강생에게 답할 기회를 먼저 주고, 없다면 교수자가 답변한다. 비대면 수업의 시험은 LMS의 퀴즈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수강생이 웹캠을 켜 둔 상태에서 오픈북으로 실시하였다.

중간시험 이후 비대면 회계사례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시간 화상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하였다. 또한 회계사례수업 진행 방법으로 대면 수업, 녹화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실시간 화상강의를 택한다는 응답이 48%로 대면 수업을 택한 응답 31%보다 오히려 높았다. 단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가장 힘든 것으로는 비대면이기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점이 가장 많았으므로 효과적인 실시간 화상강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참여에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격려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로만 구성된 수업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수업에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실시간 화상강의가 대면 수업의 한시적인 대체 수단을 넘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유용한 교수 방법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회계사례수업,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1. 서론

본 연구는 회계사례로만 구성된 수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불

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방식의 회계사례수업을 대면 방식과 비교하여 설명하며,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비대면 사례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접수일: 2022. 01.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22. 03. 10. 게재확정일: 2022. 03. 30.

*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jcpark@uos.ac.kr),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jrchung0@uos.ac.kr), 교신저자

재무회계 수업은 경제적 거래의 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강의식 수업 및 시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달해야 하는 지식의 양이 많아 시간이 항상 부족하므로 현재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사적 회계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 회계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제 사례와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이대선 외, 1996; 김창수 외, 2001; 정진수, 임종욱, 2003, 주인기 외, 2008; 이근수, 2012; 송승아, 2015). 현재 국내 회계수업의 87%가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공지능(AI)시대에 걸맞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토론,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표와 조별 활동 등을 포함하는 수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정재욱, 2021). 이에 최근에는 플립드 러닝(윤소라, 2019)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거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회계 게임(손혁, 2020)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회계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실제 사례를 이용한 토론식 회계수업이다. 회계사례수업은 최근 발생한 국내의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조별 발표 및 수강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회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계와 실무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Beattie et al. 2012). 학문적 지식과 실무에서의 실제 절차를 모두 학습해야 하는 회계 수업의 특성상 많은 수업에서 사례 연구를 활용하고 있으나, 시간 또는 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1~2개의 사례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계사례만을 다루

는 수업은 실제로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¹⁾ 윤소라(2019)도 사례 중심 학습이 현실을 반영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나, 사용할 다양한 사례가 많지 않아 한 학기를 채우기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원리를 수강한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례로만 한 학기를 구성한 회계사례수업의 내용 및 진행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참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회계사례수업은 발표와 토론 및 학생 참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의사소통 및 팀 발표 등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대학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학수업의 비대면 방식에서의 전환은 기존의 대면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비슷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비대면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선택편의(selection bias) 없이 검정할 수 있는 연구 기회가 된다(Zimmerman, 2020).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회계사례수업의 비대면 전환 과정을 소개하고,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대면 수업의 만족도와 비교한다.

비대면 회계사례수업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였으며, 대면 방식에 있던 조별 발표는 온라인으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 제외하고 대신 수업 전에 지정한 사례논문 또는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전 과제를 신설하였다. 대면 시험은 학교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한 비대면 오픈북 시험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

1) 서울 주요 대학의 경영학과 또는 회계 관련 학과 개설 교과목을 검색해 본 결과 회계사례로만 구성된 수업은 찾기 어려웠으며, 유사 과목으로 경희대학교에 회계사례연구,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회계학최근이슈가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수강편람상 최근 몇 년간 개설되지 않았다.

의 회계사례수업은 수업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과 교수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례 교육에서 필수적인 토론 및 학생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Mihret et al. 2017).

두 학기에 걸쳐 회계사례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례만을 이용한 회계수업과 비대면 방식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수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회계 수업보다 매우 효과적(81%) 이거나 효과적(18%)이라는 응답이 99%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장 좋았던 것으로는 회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응답(42%)이 가장 많았고, 가장 안 좋았던 것으로는 수업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응답(28%)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33%)이거나 효과적(42%)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5%로 나타났으며, 대면 수업, 비대면 녹화 동영상수업, 실시간 화상강의가 모두 선택 가능할 경우 실시간 화상강의를 선택하겠다는 비율(48%)이 대면 수업을 선택하겠다는 비율(31%)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가장 힘든 것으로는 비대면 방식이므로 집중이 잘 안 되는 점(31%)과 컴퓨터, 스피커, 접속 등에 오류가 가끔 발생한다는 점(27%)을 들었다. 효과적인 실시간 화상강의에 필수적인 수강생의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19%)하거나 필요(46%)하다고 응답하여 다수의 수강생이 수업참여의 성적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의 회계사례수업을 위해서는 학기 초에 수업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업참여에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과제를 부여하며, 교수자가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 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칭찬함으로써 수업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를 계속 유도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회계사례 발표 및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회계 교육에 참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참여가 필수적인 토론 수업으로 진행되는 회계사례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다.

이하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2장은 회계교육 개선 및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3장은 회계사례수업의 구성 및 진행 방법을 소개한다. 4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진행하게 된 실시간 화상강의의 운영 방법 및 기존 대면 수업과 달라진 사항을 기술하고, 5장은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본 논문을 요약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2.1 회계교육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회계 수업은 기본적으로 분개 및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회계기준 등 방대한 양의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강의 위주의 전통적인 회계수업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흥미 및 이해를 높이고 실무 적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대선 외(1996)는 회계교육이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이나 사례분석 중심의 교육이 증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박준호와 황국재(2000)는 지식경

영시대에 적합한 회계학 교육을 위해 토론식 강좌와 그룹과제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새로운 회계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백태영(2010), 김주현(2010), 송승아(2015)는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을 회계 수업에 적합한 사례를 소개하고,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교수법임을 보여주었다. 주정호와 양지연(2017)은 PBL 수업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학생들은 시험성적 및 자기평가도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정재욱(2017)은 중급회계 과목에 적용된 자기주도학습 방식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 비교할 때 자기주도학습 방식의 학습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최미화(2018)는 재무회계 교과목에 PBL을 적용하여 재무회계 수업에서도 PBL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고 팀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소라(2019)는 관리회계 수업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learning)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능력을 배양하는데 적합하고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혁(2020)은 회계의 기본인 복식부기와 계정과목을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수업 방법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회계사례수업이다. 김창수 외(2001)는 변화하는 환경이 반영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진수와 임종욱(2003)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진중열과 오준환(2001)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

어나 토의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수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보고하였다. 이장순과 문태형(2020)은 세법 교육을 위해서는 사례를 개발하여 수업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인기 외(2008)는 회계교육 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례연구나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근수(2012)는 강의와 연습문제 풀이 위주의 회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회계사례를 팀별 발표와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회계적 시각, 표현 능력, 질의대처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문보영(2016)은 영문재무제표분석 교육에서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소개하였으며, 배기수 외(2017)는 회계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검토 및 국내 대학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기업 환경 및 회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창의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수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현재 많은 수업에서 실무와의 연계성 및 종합적 사고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례만으로 수업할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아(윤소라 2019), 사례 발표 및 토론만으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김민성 외(2015)는 200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주요 학술지 6개(KBR, 관리회계연구, 회계저널, 회계학연구, 경영학연구,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회계학 논문을 분석하여 총 197편의 사례논문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로 보면 관리회계 84편(43%), 재무회계 86편(44%), 세무회계 16편(8%), 회계감사 7편(4%)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널별로도 45%가 회계저널의 특정 연도(2009~2012)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관리회계연구와 KBR을 제외한 다른 저널에는 거의 실리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계사례와 토론만으로 구성된 수업의 예시를 소개하고 수업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회계사례 관련 수업에 참고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2 비대면 수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Larson and Sung(2009)은 동일한 경영정보시스템(MIS) 강좌를 면대면, 온라인, 혼합수업(blended)으로 각각 진행한 후 수업 방식에 따른 시험성적과 평점, 만족도 등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시험성적과 평점은 수업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생의 만족도, 학습 효과, 교수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과 혼합수업 방식이 면대면 수업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ei and Wu(2019)는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비교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여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비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과 비교할 때 학부생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는 데 자체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의학 교육에서 타당한 교육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성지훈과 권순형(2021)은 실시간 화상 수업과 비실시간 녹화 영상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간 수업의 집중도가 비실시간 수업보다 유의하게 높지만, 이해도와 만족도는 녹화 영상 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녹화 영상 수업의 '다시보기' 기능이 집중하여 듣는 데는 오히려 방해되지만,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Krasodomska and Godawska(2021)는 폴란드에서 시행된 혼합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도와 최종 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대면 수업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반복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온라인 강의가 대면 강의에 비해 학습효과가 떨어지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한나(2021)는 코로나19 이후 동일한 강좌를 학기별로 동영상 제작 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한 후 학생의 강의만족도와 학습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동영상 제작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 간의 강의만족도와 학습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원격수업의 강의 만족과 학습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수업 유형이 모두 필요하며 학생의 특성과 과목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고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환경의 어려움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Sangster et al.(2020)는 45개국 66명의 회계 교육자에게 코로나19시대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 그리고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Tate et al.(2017)은 대면 수업과 비교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문적인 성실성, 기술 개발 그리고 인적 네트워킹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Malan(2020)는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학생 참여에 달려 있음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실생활 문제 및 시나리오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제는 너무 많지 않도록 하고 피드백이나 점수는 즉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신희선(2021)은 '비판적 사고와 토론'의 실시간 화상강의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가 비디오를 꺼둔 채로 수업을 방관하지 않도록 적합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조별회의, 댓글, 채팅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휴먼 터치 전략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 회계사례수업의 온라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의 관련 수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회계사례수업

본 장에서는 우선 회계사례로만 구성된 대면 수업의 내용과 진행 방식, 실제 사용한 회계사례 예시와 평가방법을 소개한다.

3.1 대면 회계사례수업의 구성과 진행

회계사례수업은 경영학 전공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나 3학년 이하 학생도 수강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업 첫 시간에 이 수업을 위해서는 '회계원리' 과목의 사전 이수가 필수이고, 중급회계까지 수강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하여 가능한 중급회계까지 이수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대부분은 3, 4학년이고 소수의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다.

회계사례수업은 먼저 발표자의 사례 발표, 수강생의 질문과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교수자의 보충 설명과 추가 질문의 순으로 진행한다. 모든 수강생은 한 학기 동안 2~3명이 팀을 구성하여 한 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15분 이내로 발표한다.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업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지루해지게 되므로, 발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하상필, 2015). 팀 발표일 경우 모든 팀원이 반드시 발표에

참여하도록 하며, 발표자는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내용을 요약한 한 장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해당 수업 시작 전에 수강생에게 배부한다.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을 수업 전에 충분히 준비시켜 놓아야 성공할 수 있다(하상필, 2015). 발표자 이외의 학생들은 사례를 읽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기 쉽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침묵이 계속되는 어색한 시간이 되기 쉽다(박삼열, 2012). 따라서 모든 수강생은 주차별로 예정된 사례를 반드시 읽도록 하고, 수업 전까지 읽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사례에 대해 한 개 이상의 질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발표가 끝나면 교수자의 진행 하에 수강생은 사례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발표자는 이에 대해 답변한다. 발표자가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발표자 이외의 학생에게 답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교수가 답변한다. 질문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교수가 수업시간에 바로 답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교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다음 시간까지 확인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3.2 주별 회계사례와 발표자 선정

〈표 1〉은 2021년 2학기 수업계획서에 포함된 주별 회계사례를 보여준다. 사례는 주로 '회계저널', 'KBR(Korea Business Review)', '경영교육연구' 등의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논문과 '동아비즈니스리뷰(DBR)' 등의 경영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매주 두 개의 사례를 다루는데 학술논문의 사례가 양도 많고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하므

2) 사례수업을 진행하던 초창기에는 수강생의 질문에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겠다고 언급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는 연구와 행정업무 등으로 바쁜 교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대부분 찾을 수 있었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교수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매 학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다 보면 교수자의 사례에 대한 지식은 축적되고, 사례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다.

〈표 1〉 주별 회계사례의 예시

주	내 용
1	과목소개, 주별 사례 설명, 재무제표 Review
2	자산유동화: 동방이동통신 부동산 유동화 사례. 2006. Korea Busienss Review(구 경영교육연구) 9(2) DBR(130) 3조원 더 준 한화의 大生 인수가 험값? (2013.6)
3	유진그룹의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과 하이마트 인수관련 영업권 회계처리 사례. 2011. 회계저널 20(2) p91-110 DBR(294) 비용이나, 자산이나... 회계 처리 둘러싼 논란 (2020.4)
4	원칙중심 회계기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대한 토론. 2020. 회계저널 29(3) DBR(140) 영구채, 국제기준상 자본이지만... (2013.11)
5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2018. Korea Business Review 22(4) p49-68 DBR(260)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2018.11)
6	매출채권 팩토링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 ㈜모뉴엘에 대한 사례연구. 2017. 회계저널 26(1) DBR(279) 롯데의 KT렌탈 인수에서 주목 끈 TRS, 철저한 정보공시로 위험을 피하라. (2019.8)
7	태산엘시디의 KIKO 관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2011. 회계저널 20(4) p367~388 (p380~383 제외) DBR(299) 전환사채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까닭은? (2020.6)
8	중간시험
9	재무적 곤경의 타개책으로서의 자산재평가: S사 사례. 2010. 회계저널 19(3) p201-218 (p208~211 제외) DBR (272) 워런 버핏은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2019.5)
10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거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투자펀드의 세무전략. 2011. KBR 14(3) p59-75 DBR(189) 한 분기 만에 영업손실 10배 회계절벽 수주산업 특성 알아야 분석 판단 가능하다. (2015.11)
11	현대건설의 구조조정과 부활. 2012. 회계저널 21(5) p361-381 DBR(240) 자사주취득, 주가관리에 매력적이지만 ... 최선일까? (2018.1)
12	SPAC과의 합병으로 상장하는 기업에 관한 사례연구. 2018. 경영교육연구 33(5) 사채발행과 회계: 교과서와 현실과의 괴리. 2018. 회계저널 27(5)
13	Unmasking the fraud in Toshiba. 2019. <i>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i> 34(3) p41-50 How to hide \$3.8 billion in expenses? <i>Businessweek</i> 2002.7.8
14	DBR(229)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어떻게 산정? 대법원까지 올라간 손상차손 평가" (2017.7) DBR(233) "손상차손 계상의 불확실성은 불가피, 확실하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2017.9)
15	기말시험

* DBR은 Dong-A Business Review를 의미한다.

로 2~3명이 팀을 이뤄 함께 발표하고, DBR 기사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1명 또는 최대 2명이 발표한다.

교수자는 첫 수업시간에 한 학기 동안 다룰 사례에 대해 순서대로 짧게 설명한다. 사례별 발표자 선정은 첫 수업 종료 후 수강생이 스스로 온라인강의실의 자유게시판에 발표자 이름과 사례 제목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된다.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발표할 사례를 신청할 때 합

게 발표할 팀원이 결정되었으면 팀원으로 올리고, 만약 함께 발표할 팀원이 없다면 단독으로 먼저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사례논문은 세 명까지 발표할 수 있으므로 자유게시판에 한 명만이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두 명까지 함께 발표할 의사를 자유게시판에 표명하면 같은 팀으로 발표할 수 있다.

발표자의 준비 사항은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파일, 한 장에 요약된 발표 자료, 그리고 개별 질문 한 개이다. 발표는 모든 팀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15분 정도의 발표 후에는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답변은 팀원 중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질문이 없으면 발표자도 해당 사례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수강생이나 교수가 답변한다.

주별 사례에서는 경영 또는 회계 전공 학생들이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2주차의 '동방이동통신의 자산유동화 사례'에서는 자산유동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이 대출, 회사채 발행,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회계처리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7주차의 '태산엘시디의 KIKO'에서도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알기 이전에 환율변동 위험과 위험회피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KIKO의 회계처리보다도 KIKO라는 상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3 성적평가 방법

수강생의 성적평가 방법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각각 30%, 발표점수가 20%, 질문과제가 10%, 출석 및 수업참여가 10%이다. 중간 및 기말시험은 주로 5줄 이하로 답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사례별로 한 문제씩 출제한다. <표 1>의 주별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시험 전에 각각 12개의 사례를 다루었으므로 총 12개씩 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시간이다. 시험문제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 이후 상장을 추진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으로써 상장조건을 달성하였다. ① 애초에 상장에 문제가 되었던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② K-IFRS의 어떤 점이

이를 해결하였는가? (유진그룹의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과 하이마트 인수관련 영업권 회계처리 사례)

시험이 끝난 다음 주 수업시간에 시험 리뷰시간을 마련하여 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설명하고 각자의 시험지를 나눠주며 수업 종료 후에는 시험지를 회수하였다. 최종 성적평가는 상대평가이고, 발표, 질문과제, 출석 및 수업참여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시험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다수 포함하였다.

발표점수는 총 20점으로 팀 발표가 15점, 질문에 대한 팀의 대답이 5점으로 구성된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각 팀원별로 평가하지만 팀워크를 반영한다. 질문과제는 각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한 개 이상 온라인강의실에 올리는 것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질문의 제출 여부로만 평가한다. 질문과제는 반드시 발표 전 일 자정까지 제출한 것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질문과제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두지 않으면 수업 직전, 또는 수업 중이나 직후에 질문을 급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석 및 참여점수는 총 10점으로 출석이 8점, 참여점수가 2점으로 구성된다. 출석과 수업참여 점점의 편의를 위해 수강생의 자리는 2주차부터 고정식으로 운영한다. 2주차에 수강생이 앉는 자리를 한 학기 동안의 자리로 고정하고, 2주차 수업시간에 미리 준비한 좌석표를 수강생에게 회람하여 각자의 이름을 적도록 요청하여 좌석표를 완성한다.

수업시간마다 인쇄한 좌석표를 지참하여 출석과 수업참여를 기록한다. 수업참여는 질문과 대답의 참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수업당 1회까지만 수업참여 점수를 부여한다. 수업당 1회를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하면 소수의 수강생이 수업참여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업참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학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공포증

때문에 침묵하고 학기 말의 강의평가에 어려웠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이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황지원, 2013). 따라서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수강생에게 참여를 권장하고, 어떠한 질문 또는 대답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되 참여 안 하려는 수강생을 호명하여 질문 또는 대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3.4 사례논문과 기사의 추출

사례논문과 경영전문지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강의자가 직접 나누어 줄 수 없고, 온라인강의실에 올릴 수도 없다. 수강생이 직접 학교도서관과 DB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여 인쇄한다. 사례논문은 수강생이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저널을 이용하여 논문의 PDF파일을 찾아 인쇄한다. DBR 기사는 미리 학교도서관 담당자

에게 온라인 구독을 요청하고, 수강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ID와 Password를 받아 이를 수업계획서에 표기하여 수강생들이 직접 DB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해당 기사를 인쇄한다.

IV.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본 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한 회계사례수업의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4.1 비대면 방식 및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

비대면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대면 수업과의 차이점은 아래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회계사례수업의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강의의 비교

	대면 방식	실시간 화상강의
발표	대면 팀발표	팀발표 없이 수강생 전원이 사례별 수업전 과제를 수행하여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
질문과제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
시험	대면 시험	실시간 화상강의에 입장하여 비디오(웹캠)을 켜고 LMS의 퀴즈 기능을 이용하여 오픈북으로 진행
출석	좌석표를 이용하여 수기로 체크	수업 종료 후 LMS의 수강생 로그인 기록을 이용하여 체크
수업참여	좌석표를 이용하여 수기로 체크	Zoom 화면에 표시된 질문자 또는 답변자의 이름을 보고 수강생리스트에 수기로 체크
수업순서	①팀발표, ②질문 및 대답, ③강의자의 요약 및 보충강의	①수업전 과제 리뷰, ②질문 및 대답, ③강의자의 요약 및 보충강의
성적평가	중간시험(30%), 기말시험(30%), 발표(20%), 질문과제(10%), 출석 및 수업참여(10%)	중간시험(35%), 기말시험(35%), ³⁾ 수업전 과제(10%), 질문과제(10%), 출석 및 수업참여(10%)

3) 비대면 방식의 성적평가에서 수업전 과제는 기한까지 완성하여 제출하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수강생 간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의 비중을 높였다.

Zoom에서도 학생들의 발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발표시간 동안 미발표 수강생이 집중하기 어렵고 교수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접속하는 온라인 환경이 달라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김지윤, 2020). 그 대신, 사례별로 '수업전 과제'를 온라인강의실에 미리 올려 수업 전 일 자정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수업전 과제는 해당 사례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5개 내외로 출제한 것으로 수강생은 사례를 읽고 답안을 작성한 후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수업전 과제에 대한 평가는 질문과제의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물음에 빠짐없이 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만점을 받는다.

시험은 LMS의 퀴즈 기능을 이용하여 사례별로 한 문제씩 5줄 이내로 답할 주관식 문제로 출제하였다.⁴⁾ 대면 시험과는 달리 오픈북으로 진행되고, 시험 내내 웹캠을 켜 두어서 강의자가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 통화는 금지하였다.⁵⁾ 수강생은 강의자가 작성한 수업전 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해당 수업 후 온라인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준비를 위해 수강생은 해당 사례 논문 또는 DBR 기사, 수업전 과제의 모범답안을 참조할 수 있고, 그 외의 참고할 교재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출석은 호명할 필요 없이 LMS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여 체크한다.⁶⁾ 수업참여는 미리 수강생리스트를 준비해 두었다가 Zoom 화면에 마이크를 켜서 말하는 질문자 또는 답변자의 이름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고 수기로 기록한다.⁷⁾

회계사례수업의 실시간 화상강의는 제일 먼저 수업전 과제부터 진행한다. 강의자가 미리 작성한 파워포인트를 화면 공유하여 각 질문에 대해 자발적으로 답할 사람을 묻고, 희망자가 답한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수강생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강의자가 마무리한다. 수업전 과제 외에도 강의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수업 중에 제기하여 수강생의 자발적 대답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자가 설명하여 사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사례논문 또는 기사의 PDF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설명에 필요한 부분은 화면 공유를 통해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효과적이다.

수업전 과제가 끝나면 사례에 대한 수강생의 질문을 받는다. 수강생의 질문에 대해 다른 수강생에게 답할 기회를 주고, 없다면 교수자가 답변한다. 비대면 수업에서도 수강생은 수업당 질문 또는 대답을 원칙적으로 1인 1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수강생의 질문이 더 이상 없고 수업시간이 남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인 2회 이상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대면 수업의 경우 수강생이 손을 들고 강의자가 허락하면 질문을 하게 되므로 질서 있고, 질문 순서가 명확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경우 누군가가 먼저 마이크를 켜고 말함으로써 질문을 하다 보니 동시에 여러 명이 질문하는 상황과 먼저 말하기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학기 초반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수강생이 질문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원하는 수강생은 모두 질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질문과 대답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4)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강생의 이메일리스트를 미리 확보한 후, 구글 설문지에서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시험 시작 직전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시험문제(퀴즈)를 발송한다. 수강생은 이메일을 보고 다운로드 없이 버튼 클릭을 통해 바로 시험문제로 접속할 수 있으며 답안을 화면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된다.

5) 웹캠이 없는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Zoom에 추가로 로그인하여 비디오를 켜두면 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강생들이 같은 장소에서 접속하여 시험을 보는 것은 금지한다. 시험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없었다.

6) 학생들은 LMS에 로그인하여 교수자가 만들어 둔 화상강의 버튼을 클릭하면 Zoom에 자동 로그인되고 Zoom 로그인 기록이 LMS에 남게 된다.

7) 질문자 또는 답변자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성명을 직접 물어서 확인한다.

Zoom은 자동 녹화기능이 있으므로 실시간 화상강의의 녹화 동영상을 수업 후 LMS에 업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녹화 동영상이 실시간 화상강의의 집중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으므로(성지훈, 권순형, 2021)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학생들이 미리 요청하면 업로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시간 화상강의를 처음 진행할 때는 교수자와 수강생 모두 Zoom 사용 방식이 낯설어 다소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리 없이 잘 적응하였다. 수강생의 팀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강생의 수업참여와 시험은 대면 수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례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회계사례수업의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대면 방식은 수강생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고, 동료 수강생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기회를 얻으므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 방식은 발표와 토론의 기회가 대면 방식보다는 적지만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직접 참석하기가 어려운 직장인 또는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대면 방식의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V.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2021년 1학과 2학기 회계사례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계사례수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중간시험 이후 12주에서 13주차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학교 LMS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례만을 이용한 회계수업의 효과에 관한 문항과 비대면 방식의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5.1 회계사례수업에 대한 설문 문항 및 결과

회계사례수업에 대한 문항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은 우선 전통적인 강의식 회계 수업과 비교하여 사례를 이용한 회계수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선택형 1). 다음으로 사례수업에서는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 중 질문 또는 대답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선택형 2,3). 마지막으로 현재 회계사례수업에서 좋았던 점 및 개선할 점(선택형 4,5), 그리고 기타 수업의 개선점에 대한 주관식 설문(서술형 1, 2)을 포함하였다. 2021년 1학과 2학기 설문지는 1학기에 34부, 2학기에 33부로 총 67부가 회수되었고, 수강생 대비 회수율은 1학기 77%, 2학기 73%로 평균 75%이다.

<표 3>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국내의 실제 사례를 이용한 회계사례수업이 전통적 강의식 회계수업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효과적이다'가 81%, '효과적이다'가 18%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99%)이 회계사례수업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만 진행한 수업이 많은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회계수업이 분개나 계산 위주로 진행되는 데 반해 회계사례수업은 기업의 상황, 경영진의 판단, 논란의 발생, 결과 등의 사건 전개 방식으로 진행되고, 강의자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질문과 대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더 흥미 있고,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꼭 필요하다'가 19%, '어느 정

〈표 3〉 회계사례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번호	설문 문항	1학기	2학기	합계
선택형 1	국내의 실제 사례를 사용한 회계교육은 전통적 회계수업보다 효과적인가?			
	① 매우 효과적이다.	25	29	54(81%)
	② 효과적이다.	8	4	12(18%)
	③ 보통이다.	1	0	1(1%)
	④ 효과적이지 않다.	0	0	0(0%)
	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0	0(0%)
선택형 2	수업참여(수업 중 자발적인 질문 또는 대답)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꼭 필요하다	5	8	13(19%)
	②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14	17	31(46%)
	③ 잘 모르겠다	7	6	13(19%)
	④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1	6(9%)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1	4(6%)
선택형 3	현재의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7	10	17(25%)
	② 적절하다	12	15	27(40%)
	③ 보통이다	8	7	15(22%)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6	0	6(9%)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1	2(3%)
선택형 4	현재 수강 중인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①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6	11	17(25%)
	② 사례별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7	6	13(19%)
	③ 회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17	11	28(42%)
	④ 분개 없이 회계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4	5	9(13%)
	⑤ 궁금한 점을 수업 중에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0	0	0(0%)
선택형 5	현재 수강 중인 수업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① 다루는 사례가 너무 많다	4	2	6(9%)
	② 사례별 내용이 너무 길다.	6	6	12(18%)
	③ 사례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6	8	14(21%)
	④ 수업전 과제와 질문과제가 부담된다.	4	1	5(7%)
	⑤ 수업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10	9	19(28%)
	⑥ 시험 준비가 어렵다	4	7	11(16%)
서술형 1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서술형		
서술형 2	앞으로 수업시간에 다루주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서술형		

도는 필요하다'가 46%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수업참여의 성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가 9%, '전혀 필요하지 않다'도 6%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수업참여의 필요성을 학기 초에 잘 설명하고, 수업참여가 어렵고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업참여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가 25%, '적절하다'가 40%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가 9%,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3%로 평가 방법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회계사례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회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가 42%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가 25%, '사례별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가 19%를 차지했다. 이는 사례를 이용한 회계수업이 기대한 대로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수강 중인 수업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수업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가 28%로 가장 많았고, '사례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가 21%, '사례별 내용이 너무 길다'가 18%, '시험 준비가 어렵다'가 16%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수업참여를 권장하되 부담을 줄여주고, 사례 선정에서는 난이도와 분량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험 전에 시험문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에 대한 서술형 문항에서는 수업참여 점수를 질문이나 대답의 횟수가 아니라 질을 보고 반영하도록 하거나, 수업참여 횟수를 수업당 1회만 성적에 반영하더라도 수업참여의 기회는 1회로 제한하지 않기, 주차별로

질문 또는 대답할 수강생을 미리 지정, 수업참여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알면서 묻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문제점의 예방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수업시간에 다뤄주기를 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회계처리, 벤처캐피탈 관련 사례,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퇴직급여와 관련된 이슈, 금융기관에 관한 사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혹은 파생상품에 대한 사례, 합병이나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다양한 전환권에 대한 회계처리,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를 제안하였다.

5.2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

다음으로 비대면 방식의 효과에 관한 설문 문항 및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 항목은 비대면 수업, 즉 실시간 화상 강의에 대한 평가(선택형 6) 및 어려운 점(선택형 7), 그리고 사례수업 방법으로 대면과 비대면 중 선호도(선택형 8)에 대한 선택형 질문 및 개선점(서술형 3)에 대한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4>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시간 화상강의의 효과에 대한 문항은 '매우 효과적이다'가 33%, '효과적이다'가 42%로 75%의 학생이 실시간 화상강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하였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된다'가 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컴퓨터 오류, 접속 오류, 스피커 오류 등이 가끔씩 발생한다는 점'이 27%를 차지했다. 실제로 수업 중 채팅창에 접속불량으로 재접속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학생들이 종종 있었고, 다른 실시간 화상강의에서는 시험 도중 통신사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연결이 끊긴 학생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반면, '힘든 점 별로 없음'을 택한 응답도 18%에 이른다.

〈표 4〉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

번호	설문 문항	1학기	2학기	합계
선택형 6	한 학기 동안 실시간 화상강의를 경험해 본 결과,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① 매우 효과적이다.	8	14	22(33%)
	② 효과적이다.	16	12	28(42%)
	③ 보통이다.	9	7	16(24%)
	④ 효과적이지 않다.	1	0	1(1%)
	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0	0(0%)
선택형 7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①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1	2	3(4%)
	② 컴퓨터 오류, 접속 오류, 스피커 오류 등이 가끔씩 발생한다는 점	9	9	18(27%)
	③ Zoom의 마이크, 비디오, 채팅 등 사용방법이 낯설다는 점	2	0	2(3%)
	④ 마이크, 웹캠, 노트북, 와이파이 또는 랜선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4	1	5(7%)
	⑤ 교수님과 쌍방향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2	4	6(9%)
	⑥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점	12	9	21(31%)
⑦ 힘든 점 별로 없음	4	8	12(18%)	
선택형 8	회계사례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동영상 수업 또는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Zoom)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① 대면강의	10	11	21(31%)
	② 녹화 동영상	7	7	14(21%)
	③ 실시간 화상강의 (Zoom)	17	15	32(48%)
서술형 3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서술형		

회계사례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 비대면 녹화 동영상 수업,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실시간 화상강의'가 48%로, '대면 수업'을 택한 31%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화상강의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한시적인 대체재가 아니라 이동시간의 절감, 편리함의 이점이 있는 실시간 화상강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대면 수업보다 더 선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도 웹캠을 켜도록 의무화, 발표의 지정 등 수업참여

를 의무화,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 있는 파워포인트 제작, 여러 가지 사례 후보 중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사례를 다수결로 선정 등을 제안하였다.

VI. 결론

분개와 문제풀이 위주의 회계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실제 사례의 소개, PBL, 플립드러닝, 자기주도학습 등의 노력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례를 이용한 수업은 실무에서 회계 관련 시사적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토론식 수업이다. 또한 기존의 여러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많은 회계 강의에서 사례를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소수의 사례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사례만으로 구성된 수업의 내용 및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수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방식은 선택편의 없이 대면 방식의 학습효과와 비교해볼 수 있는 연구 기회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회계사례수업과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화상강의의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1, 2학기에 걸쳐 총 67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사례수업은 전통적 회계수업보다 매우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에 달하였고, 수업참여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하여 수업참여의 성적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회계사례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회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장 안 좋았던 점으로는 수업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에 대해서도 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매우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하였다. 이는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는 사례수업의 경우에도 비대면 수업의 질이 대면 수업보다 낮지 않음을 제

시하고 있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비대면이므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었고, 다음이 컴퓨터 오류, 접속 오류, 스피커 오류 등이 가끔 발생한다는 점이였다. 회계사례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 녹화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실시간 화상강의를 택한다는 응답이 48%로 대면 수업을 택한 응답 31%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실시간 화상강의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효과적이었고, 대면 수업의 한시적인 대체 수단을 넘어 잘 사용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공헌점이 있다.

효과적인 실시간 화상강의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수업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수업참여가 어렵고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학기 초에 교수자가 수업참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소수의 수강생이 수업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수강생의 수업당 참여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하며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에 사용할 사례를 개발한다면 앞서 언급한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상화폐 회계처리, 벤처캐피탈,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퇴직급여 관련 이슈, 금융기관 사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혹은 파생상품 사례, 합병이나 사업결합 회계처리, 다양한 전환권에 대한 회계처리,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례수업의 준비는 일반적 회계수업의 준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아무리 준비해도 학생들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강생의 질문에 나중에라도 답을 제공하면 수강생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고, 강의자의 실무 지식이 향상되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강의자의 보람도 크다. 사례수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행착오를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eattie, V., S. Fearnley, and T. Hines(2012), "A real-life case study of audit interactions? resolving messy, complex problems," *Accounting Education*, 21(2), 111-129.
- Krasodomska, J. and J. Godawska(2021), "E-learning in accounting education: the influence of students' characteristics on their engagement and performance," *Accounting Education*, 30(1), 22-41.
- Larson, D. K. and C. Sung(2009), "Comparing student performance: Online versus blended versus face-to-fac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3(1), 31-42.
- Malan, M. (2020), "Engaging students in a fully online accounting degree: an action research study," *Accounting Education*, 29(4), 321-339.
- Mihret, D.G., N. Abayadeera, K. Watty, and J. McKay(2017), "Teaching auditing using case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role of ePortfolio assessment," *Accounting Education*, 26(4), 335-357.
- Pei, L. and H. Wu(2019), "Does online learning work better than offline learning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edical Education Online*, 24(1), 1-13.
- Sangster, A., G. Stoner, and B. Flood(2020), "Insights into accounting education in a COVID-19 world," *Accounting Education*, 29(5), 431-562.
- Tate, S., Reinstein, A., and N. Churyk(2017), "The impact of online education on accounting recruiting," *CPA Journal*, 87(9), 13-15.
- Zimmerman, J.(2020), "Coronavirus and the great online-learning experiment,"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66(25), 1.

국내참고문헌

- 김민성, 정형록, 김미옥, 박진하(2015), "한국 관리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 *관리회계연구*, 15(1), 71-112.
- 김주현(2010), "경영학 교육에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 도입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4(1), 1-16.
- 김지윤(2020), "다매체시대 효율적 토론 수업 연구 -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델 비교와 그 의미," *사고와 표현*, 13(2), 213-252.
- 김창수, 남천현, 조현연(2001), "회계환경 변화와 회계학 교육의 개선방향," *회계저널*, 10(1), 273-314.
- 김한나(2021),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사범학부 학생들의 강의만족도와 학습효과 연구: 동영상 제작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69-193.
- 문보영(2016), "영문재무제표분석 교육을 위한 사례적용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0(1), 153-176.
- 박삼열(2012),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 전략," *교양교육연구*, 6(4), 237-262.
- 박준호, 황국재(2000), "지식경영과 회계학 교육," *Korea Business Review*, 4(1), 29-45.
- 배기수, 김재열, 김종현, 이원기, 유성용, 문상혁(2017), "4년제 대학의 회계학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회계저널*, 26(2), 179-207.
- 백태영(2010), "PBL(문제중심학습)의 원가관리회계 교육에의 적용," *회계저널*, 19(4), 61-89.
- 성지훈, 권순형(2021), "일반대학에서의 실시간 화상 수업과 비실시간 녹화 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비교: 수업 집중도, 이해도,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5), 239-267.
- 손혁(2020), "회계배울래 아님 좀비될래?: 회계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에 대한 사례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4(2), 101-120.
- 송승아(2015), "PBL 방법론을 적용한 영어관리회계수업 사례," *경영교육연구*, 30(1), 569-591.

- 신희선(2021), "비대면 환경에서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교육 - 공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and Research**, 24(1), 34-45.
- 윤소라(2019), "새로운 교수법, 플립드 러닝의 관리회계 수업에의 적용," **회계저널**, 28(1), 259-284.
- 이근수(2012), "회계사례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 1072-1092.
- 이대선, 고완석, 안태식, 최관(1996), "회계원론 교육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5(1), 89-107.
- 이장순, 문태형(2020), "사례를 이용한 세법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납세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 " **국제회계연구**, 93, 135-158
- 전중열, 오준환(2001), "학생의 인식차이를 고려한 고객지향적인 회계교육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0(1), 257-272
- 정재욱(2017),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회계교육 및 성과 사례," **회계연구**, 22(6), 218-219.
- 정재욱(2021), "인공지능, 회계전문가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회계교육 현황과 미래,"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 1-28.
- 정진수, 임종욱(2003), "회계학 교과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영교육연구**, 32, 57-71
- 주인기, 송인만, 권수영, 황이석, 심태섭(2008), "회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회계교육 강화 방안," **회계저널**, 17(1), 27-59.
- 주정호, 양지연(2017), "프로젝트 중심 학습(PBL)에서의 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회계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Korea Business Review**, 21(4), 119-140.
- 최미화(2018), "재무회계학 교육에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방식 도입 사례," **회계와정책연구**, 23(3), 353-393.
- 하상필(2015), "강의식 수업을 대체하는 토론식 수업의 한 모형," **사고와표현**, 8(1), 41-71.
- 황지원(2013), "대학 토론 교육의 의미와 구체적 적용," **교양교육연구**, 7(3), 565-595.

The Learning Effectiveness of Synchronous Video Teaching in an Accounting Case-based Class

Jongchan Park* · Juryum Ch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survey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synchronous video teaching after COVID-19 in a case-based accounting class, which includes student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unlike traditional accounting classes focusing on journalizing and problem-solving.

Synchronous video teaching of the case-based accounting class with Zoom includes pre-class assignments instead of students' presentations in a face-to-face class. The class begins with the teacher's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e case, followed by the review of pre-class assignments, additional discussions of the issues involved, and students' voluntary questions and answers. Quizzes in the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are used as open book exams for online assessment.

The survey result over two semesters shows that 99%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 case-based accounting class i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accounting classes and 75% of students feel that synchronous video teaching is also effective. The most chosen mode of teaching was synchronous video teaching(48%), followed by face-to-face teaching(31%). Students selected lack of concentration as the most challenge in synchronous video teaching.

Most of students(65%) responded class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ded in course grading. Students rated learning how accounting is applied in real business as the best, but feeling pressure in class participation as the worst in synchronous video teaching.

The survey result indicates that synchronous video teaching is not just a temporary substitute for face-to-face teaching, but a useful teaching method overcoming spatial constraints. Effective synchronous video teaching requires the class design to prepare class participation adequately and teachers' careful concern for students burdened by class participation.

Key Words: Case-based accounting class, Face-to-face teaching, Online teaching, Synchronous video teaching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